

올해 아주대학교에서 첫 개설된 “아시아공동체론”은 그간 보여져왔던 일반강의들과는 다르게 꽤 신선한 방식을 도입한 수업이다. 국제학부에 속해 있는 국제통상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었던 터라 해당 강좌들을 탐색하던 중, 우연히 아시아공동체론의 강의계획서를 보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수강버튼을 눌렀다. 본 수업이 상위 20% 정도의 성적우수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매력적인 요인이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매주 다른 국내외의 저명한 연구자, 실무자 등을 초빙하여 윤강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방식이 내가 이 강의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였다. 왜냐하면 사실 신입생 때부터 교내에서 열리는 저명한 분들의 특강들을 직접 찾아가서 듣는 것이 나 스스로가 설정한 배움의 일차적인 공간이었는데 이 강좌가 바로 그러한 것을 만족시켜줄 특별한 강좌였기 때문이다.

본 과목은 아시아공동체론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역사 등의 각 분야에 있어서 협력 및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기본요건으로 한다. 제목과 같이 아시아만을 다루기 때문에 한중일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어 이 과목의 개설취지인 진정한 아시아인을 길러내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동안 정치외교학과를 비롯한 많은 국제학부 과목들을 통해 한중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연구자 및 학자분들의 강연을 들은 것이 정말 예상치도 못한 신선한 충격을 내게 안겨주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그동안 내가 어떤 한 주제에 대해 생각해왔던, 나의 생각이 더해진 고정관념이 본 강의를 통해 완전히 뒤바뀌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한 주제에 대해 아예 처음 접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들은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종의 가치전환이었다. 만약 내가 각 분야의 내용을 아예 처음 접한 상황이었다면 그 지식을 수용하기에 바빴을 테지만 내가 그 분야를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들었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했고 내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들이나 내가 바라본 관점들이 저명한 학자분의 생각과 관점의 어떤 부분에서 다른 것인지 등을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국제학부의 수업을 전혀 들어보지 않은 학생보다 국제학부 수업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 학생에게 “아시아공동체론”수업을 더 적극추천하고 싶다.

“아시아공동체론”수업은 성적평가 방식이 매우 정직하다. 매주 강의를 요약하고 자신의 느낀점까지 덧붙여 A4지 1장 분량으로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매주 수업에 얼마나 성실했는지, 해당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강의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또한 강의 커리큘럼이 안보, 경제, 무역, 문화 등 매우 다양한 데다 강의 순서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 수강생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신경써주신 것이 돋보였다. 사실 개인적으로 매주 리포트를 정성들여 작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글자, 한 글자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난다. 물론 오직 아주 대학생들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연구자분들과 몇 달 동안 본 강좌개설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주신 교수님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솔직하고 정성스럽게 쓴 리포트로 대신하고 싶었던 마음도 컸다. 매주 리포트를 쓰다보니 어떻게 하면 논리정연하게 글을 요약할 수 있는지 등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되었고 문장력 또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스스로도 정말 놀랐다. 하지만 내게 가장 뿌듯하고 행복했던 시간은 어떤 한 주제 및 분야에 대해 혼자서 깊이 생각해보고, 생각이 막히면 책,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스

스로 찾아보거나 혹은 해당 분야를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라도 궁금증을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내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을 때였다. 이는 내가 지식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한 번 거쳐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수업은 끝이 났지만 이러한 습관은 내가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오래토록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끝으로, “아시아공동체론”수업을 들은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자신할 수 있다. 매주 한중일의 저명한 연구자 및 실무자분들이 저마다 다른 분야에 대해 강의를 해주셨지만 ‘아시아’라는 큰 틀 안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같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들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같이 다 이 강의의 개설취지와 부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도 수업을 대하는 데 있어서 더 진지해지고 더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다. 그 덕분인지 수업이 마무리되어갈 때 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학금을 받게 되어 어안이 병병했다. 애초부터 강의 커리큘럼이 마음에 들어서 들었던 과목인지라 그냥 열심히 하자는 생각 하나로 수업을 들어왔었는데 감사하게도 장학증서까지 주셔서 이 수업은 여러모로 내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수업으로 남을 것 같다.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아시아공동체론”이 내년에도 개설된다고 하는데 내가 누렸던 이 황금같은 기회를 가 능한 한 많은 아주대학생들도 가져갔으면 좋겠다. 나의 후기를 읽고 아직도 들을까 말까 고민중이라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강의스타일이 제각각이긴 하지만 이 수업은 매번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재미가 매우 쏠쏠하기 때문에 그간 수업방식이 지루했던 학생이라면 꼭 들어보길 추천한다. 물론 매주 보고서를 써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이 또한 그만한 가치, 아니 그 이상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전공지식을 쌓기 위해 듣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교양으로 듣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아시아공동체론”수업이 참다운 아시아인을 길러내는 데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이 수업을 후원해주신 원아시아재단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